

# 도내 특장차산업 활성화 방안 노력

### 전북자치도-김제시-자동차융합기술원, 특장차 기업 간담 개최 김종훈 부지사, 특장차 전문단지 현장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에서 특장차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김제시, (재)자동차융합기술원, 특장기업 8개사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이찬준 김제 부시장, 평강비아이엠 최길호 대표, 에이엠특장 운흥식 대표 등 8개 기업 대표를 포함한 특장차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는 특장차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장차 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김제 특장차전문단지에서 특장차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김제시, (재)자동차융합기술원, 특장기업 8개사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검사지원센터 구축 등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에 특장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구 특장차전문단지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특장차 집적화 단지로 현재 제1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해 3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준공해 단지 내 입주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장차기업 대표들은 개발된 차량의 판매저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미래 특장차산업에 위해서는 전동화 구동 기술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특장차 산업은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특장차전문단지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북농협은 21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전북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로코노미) 상품 브랜드 사업 관련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 전북농협, 구경브랜드 발굴하다

### 로코노미 상품 브랜드 사업 간담회

전북농협은 21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전북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로코노미) 상품 브랜드 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를 합성한 신조어다. 지역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혹은 공간을 일컫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축협 9곳과 농협경제제주 식품사업부, 온라인사업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로코노미 상품 개발, 가공사업 마케팅 윈스톱 지원 방안, 온라인 사업 확대 등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호협력력을 통해 전북 농식품 판로 확대를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전북농협은 참여 농·축협을 통해 신규 온라인(B2C) 채널 확대, 컬러푸드 상품 개발, 포장재 제작 등을 통해 상품화·판매·마케팅 등 사업 전반 윈스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참여 농축협 9곳의 상품은 고산(감식초), 공덕(고구마가공품), 군산원예(편백), 대성(편백), 동갑제(떡볶이), 익산(참쌀떡), 임실치즈(치즈·요거트), 해리(소금) 등이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은 "전북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우수한 지역특화 상품이 많다"며 "앞으로 우수 로코노미 상품들을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구경(9慶) 브랜드 지원사업은 지역 로코노미 상품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행위인 구경을 통해 완성도 높은 히트 상품 9가지를 발굴·홍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스

## 경진원,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특강 진행

전북특자치도와 산하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동원 팀장을 초빙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전북도의 바이오특단지 유치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북메이커스페이스 북쪽365에서 진행한 이번 특강에는 경진원 임직원들 비롯한 바이오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바이오헬스산업 현황과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업분야로, 경진원은 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 농어촌공전북본부, 2024년 농촌재생프로젝트 지원 박차를 가하다

###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 적극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정문)는 농촌지역의 농촌다움 회복과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소멸 방지 등을 위해 전북도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재생프로젝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정부에서 전국 1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협약의 제안공모 신청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북본부는 2024년도 공모신청을 계획중인

시·군의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2023년까지 전국 75개, 전북지역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대상 시·군 중 10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전북본부는 선정된 10개 시·군의 계획수립에 모두 참여하여 업무를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 공모를 준비중인 시·군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농촌공간의 난개발 해소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

촌공간정비사업 공모신청을 준비중인 순창군을 지원하여 경관저해와 악취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저하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인계면, 풍산면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본부는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북지역 13개 대상 시·군들이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농촌진흥청, 보안 생활화로 보안 사고 예방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20일 자체 '보안혁신의 달'을 맞아 공직자 보안 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한 후방 테러 위협과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공직자 보안 기강 해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



농촌진흥청은 지난 20일 자체 '보안혁신의 달'을 맞아 공직자 보안 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한 '보안 서약문 낭독', '보안 실천행사' 진행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체 '보안혁신의 달'로 지정하고 정부 기관 사칭 해킹 메일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는 해킹 메일 훈련,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보안 진단점검, 보안 퀴즈 및 보안 홍보 등 다양한 보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송영상 운영지원과장은 "보안 환경 격변기를 맞아 공직자 보안 기강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상림동 승용차 수소충전소 착공

### 전북개발공사,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박차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일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67-26번지 일원에 승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착공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상림동 LPG충전소(공위팔지로/전주대 방향) 부지 내에 구축되며, 설비 용량은 250kg/일로 수소승용차 기준 1일 5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며 승용차 전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시운전 기간을 거쳐 본격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사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부응하고 도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장을 위해 지난 2021년 익산에 공공기관 1호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3개의 수소충전소를 준공하였으며, 올해는 군산시와 협력하여 버스 수소충전소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소차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